



더운 여름, 달콤시원한 팔빙수처럼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

뒷줄 왼쪽부터 이원중, 이도섭, 이민주, 김학민 / 앞줄 왼쪽부터 박진섭, 윤진 팀장, 박윤진

“♪ 팔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졸인다”

더운 여름이면 생각나는 국민 간식, 팔빙수. 얼음과 팔 그리고 과일과 시럽 등 기호에 맞는 재료를 한데 넣어 먹는 팔빙수는 여러 재료가 섞였음에도 하나의 맛으로, 우리에게 여름 간식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여름 초입, 7명 모두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갖춘 팀원으로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과 달콤시원한 팔빙수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 ■ NFRI의 '얼음'과 같은 존재

팥빙수의 주인공은 당연히 '팥'이다. 하지만, 팥빙수가 진정한 여름 간식으로 사랑받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은 곱게 갈려 있는 '얼음'이다. 오늘 만난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이야말로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얼음'과 같은 존재이다. 연구소 안, 모든 시스템의 가장 최전방에서 있는 팀원들. 한 시간 반이던 촬영 시간 동안 팀원들이 받은 전화만 해도 벌써 여러 통 그리고 촬영 도중, 연구소로 돌아가는 팀원까지. 출장에 가셔도 원격시스템을 통해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윤진 팀장의 말처럼, 그들은 정말 팥빙수의 '얼음'과 같은 존재이다. 기관의 정보화와 정보보호, 전산 인프라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에서는 연구소 설립 이후 단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며 현재에는 그룹웨어 모바일버전과 연구 관리시스템, 영문시스템, 통합 정보보호시스템 등 기관 운영에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최신기술로 구현하고 있다.



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이 있기까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창단 스토리가 있었다.

“연구소가 커지자, 전문적으로 전산 인프라를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었지만, 불필요한 절차가 있거나 전달이 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NFRI 최고의 정예요원이 모여 팀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구소의 미래를 위해 팀원 스스로 모여 구성된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 그래서일까?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들만의 정(情)을 느껴 볼 수 있었다. 또한 그 덕분인지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의 연구는 해가 갈수록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 한해도 많은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구기관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FMC시스템은 유무선을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연락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형 사무실 구현 시스템으로 아직은 구현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기술적인 난제들을 풀고 안정적이며 질 높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진 팀장은 연구 관리팀과 공동으로 진행될 연구 관리시스템을 소개하며, 핵융합연구사업 전체를 관리할 중요한 시스템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연구 관리를 위해 전주기적 연구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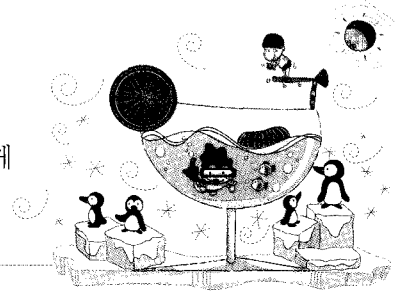


■ ■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의 창단 스토리

귀여운 재빙기와 벌써부터 군침 도는 팥, 그리고 후르츠와 시럽 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팥빙수 만들기가 시작됐다. 평소에도 간식내기를 즐긴다는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은 준비된 숟가락과 팀원들의 숫자가 맞지 않자, 벌써부터 나오시길 팀원 뽑기에 분주하다. 곱게 갈린 얼음 위로 팥을 올리고 취향대로 여러 재료를 올리는 팀원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재료는 역시 달콤한 맛의 후르츠와 고소한 미숫가루. 건강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내라는 의미로 팀원들에게 만들어주는 팥빙수라서일까? 모두 신중하게 팥빙수 만들기에 도전 중이다. 물론 엄마의 마음으로 손맛을 살린 팥빙수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편안

■ ■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같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서로 믿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고마운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에게
 팀원 모두, 정성껏 만든 팔빙수와 그간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해본다.



● “박진섭 씨! 초기에 저희 팀으로 올 때 순조롭지
 않아 맘고생도 하고, 또 두 팀을 오가며 업무를
 진행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시원한 팔빙수
 먹고 힘내세요!” - 이민주



● “가장 어려운 시기와 힘들었던 시간을
 늘 함께 했던 우리 팀의 두 여성분~
 윤진 팀장님과 이민주 씨! 이번 기회에
 쉬어가는 의미로 저의 사랑(?)이 담긴
 팔빙수를 드립니다” - 이도섭



● “차 에어컨이 고장 난 이원중 씨,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팔빙수 먹고 버티 봐요!” - 박윤진
 ● “이원중 선배님, 이 팔빙수를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요” - 김학민

● “저하고 같은 입맛을 소유하고 계신
 윤진 팀장님, 달달하게 제조한 제 팔빙수
 드셔 보세요” - 이원중



● “우리 팀의 대소사를 다 챙겨 주셔 든든한 박윤진 선배님과 김학민 씨. 그리고
 올해 고생이 가장 많으면서도 즐기며 일하고 있는 이도섭 씨~ 제가 정성껏 만든
 팔빙수를 먹고 힘내세요!” - 윤진 팀장
 ● “워커홀릭 도섭이형~ 달랑 팔빙수 한 그릇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드시고, 힘내서 더욱 열심히 도와주세요!” - 박진섭

서로 간의 믿음으로 현재의 자리를 만든 사람들. 늘 곁에 있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산소처럼 연구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들이 있기에 어려움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달콤시원한 팔빙수처럼. **NFRI**